



한국문학의 성찰과 진로의 모색

독립 문학 운동을 이끌어가는 우리 시대의 문학 전문지

『쓰름-문학의 이름으로』 제5호 발행

문학실험실 / 140*240 / 472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발신: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대표 이인성)

수신: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

담당: 최하연 (문학실험실 사무국장) 010-4212-0752

한국문학의 성찰과 진로의 모색, 『쑈-문학의 이름으로』 제5호 발행

‘문학은 다시금 무엇일 수 있으며, 새로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2015년 9월 창간한 반연간 문학전문지 『쑈-문학의 이름으로』의 제5호가 나왔다. 이 잡지의 기본 방향은 문학의 본질을 사유하는 질문 그 자체를 향해 있다. 잡지의 창간사에서 밝힌 대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전 지구적 문화산업의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에 맞서는 ‘강렬한 부정의식과 저항적 실험 정신을 문학 내부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해온바, 이번 호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이 배어 있는 깊이 있는 글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문학성과 정치성: 그 인식의 재정립을 위하여” 특집으로 꾸며

정치가 일상화되고 일상이 정치화되는 시대이다. 아도르노의 말을 변용하자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언어가 그 자체로 사회성을 띠고 있는 까닭에 문학은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문학은 정치적 자유가 희박할 때에는 최소한의 조건으로부터 자유에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마다치 않았으며 사유와 공적 발화가 스스럼없는 어떤 드문 시간 속에서는 가까스로 윤리의식을 부과하고 경계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어찌 보면 언어의 자의와 정치 환경의 타의가 그 전후 관계와 인과관계를 구태여 단속해보게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정치적 ‘올바름’과 문학적 ‘실효성’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도래했다. 언제부턴가 정치적 올바름이나 윤리적 올바름의 명제가 문학의 수일성이나 실효성과 서격거리면서 내는 미묘한 마찰음들이 감지되어왔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문학성과 정치성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정색하며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현재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문학성과 정치성의 관계에 있어 보편적으로 궁구되는 운동의 자취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도 헤아려 보고 싶었다.

- 문학적 진리는 가능한가_유비적 상상력과 공동체에 관한 숙고 | 김대산
- 기원적 물음을 찾아서_소비에트 팩토그래피라는 동시대성 | 김수환
- ‘문학과 정치 사이의 ‘어떻게’_ 점점 더 정치의 시녀가 되어가는 문학을 근심하며 | 정과리
- 현실과 문학의 현실_문학이 공론장에서 활용되는 방식들 | 김나영
- ‘정치적으로 올바른’ 소송의 시대, 책 읽기의 어려움 | 복도훈
- 재현의 정치성에서 상상의 정치성으로_김시종과 김혜순의 시 | 송승환

이번 특집의 구성은 우선, 김대산 씨가 다분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어의식과 유비적 사유를 중심축으로 문학적 진리의 문제를 다시 따져 묻고, 김수환 씨는 역사적 관점에서 문학과 정치의 일체화가 요구되었던 구 소비에트의 특정 시기에 존재한 ‘팩토그래피 factography’ 양식을 통해 유추적으로 오늘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런 성찰적 거리를 띄운 뒤의 나머지 네 편의 글들은 매우 구체적인 한국문학 현장으로의 접근에 해당한다. 정과리 씨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현실과 문학적 현실의 연관관계를 요령 있게 제시하면서, ‘결락되어 있는 언어’로서의 문학이 정치와 ‘어떻게’ 만날 것이냐는 방법론에 대한 시급한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김나영 씨의 글은 현실 속에 놓인 문학의 자기 자리를 되짚으면서 문학이 공론장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어서 복도훈 씨는 문학의 의의가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에 전제되는 인간 실존에 대한 근본적 탐구가 여전히 중요한 문학의 역할임을 부각시킨다. 그 연장선에서, 송승환 씨는 두 시인의 작품들을 구체적 예로 삼아 증언과 재현의 직접성과는 달리 상상력의 언어로 작동하는 문학의 정치성에 대해 세심하게 논하고 있다.

문학비평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제3회 문학실험실 포럼-문학비평의 반성: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도 실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문학실험실 포럼’의 주제는 특집과 짝을 이룬 “문학 비평의 반성: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로, 오늘의 문학 비평 자체에 대한 점검과 반성을 겨냥하고 있다. 내걸린 주제는 얼핏 너무

단순하고 광범위해 보이지만, 현재의 우리 문학 현실이 복합적인 만큼이나, 세대를 달리하는 네 발제자의 의견은 매우 구체적이며 논쟁적으로 여러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다. 홍정선 씨는 최근 발표된 비평문들을 실례로 삼아 그것들이 원 작품과 어떤 괴리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지적함으로써, 비평의 숙명인 작품 읽기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다시금 내세운다. 김영찬 씨의 경우는,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된 한 소설을 놓고 제시된 두 비평가의 상반된 견해를 대비시키면서, 텍스트의 안과 밖이 분리될 수 없으며 미학과 메시지가 이분법적으로 고려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우회로를 택한 양윤의 씨는 최인훈의 『광장』을 재독하면서 알레고리 개념을 통해 텍스트의 내부와 외부를 이분법적으로 구획하는 경직성을 비판하고, 결국 비평이 스스로 의미를 획득하는 텍스트 자체로 돌아와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문학과 문학이론의 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접근한 강동호 씨는 선형적 이론을 연역적·도식적으로 작품에 적용하는 틀을 넘어서 양자가 생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포럼의 발제문들은 하나같이 논쟁적이며 생산적이어서, 현장의 열기는 물론, 다양한 후속 토론을 예감하게 한다.

희곡 창작집단 <독>의 집단 창작 작품, ‘텍스트 실험 공간’에 실려.

문학실험실의 『쏘』 잡지는 창간호부터 지속해 희곡 지면을 늘여왔으며, 이번에 특별히 ‘텍스트 실험 공간’ 코너에 집단창작 작품을 실음으로써, 지난 20여 년간 문학지로부터 외면당해온 희곡을 텍스트로 호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학의 자장 안에서 희곡의 문학성이 더욱 조명되는 것은, 나아가 연극계와 문화계 전반에 걸쳐 질적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차례

특집 : 문학과 정치성_그 인식의 재정립을 위하여

문학적 진리는 가능한가: 유비적 상상력과 공동체에 관한 숙고 | 김대산
 기원적 물음을 찾아서: 소비에트 팩토그래피라는 동시대성 | 김수환
 문학과 정치 사이의 ‘어떻게’: 점점 더 정치의 시녀가 되어가는 문학을 근심하며 | 정과리
 삶의 현실과 문학의 현실: 문학이 공론장에서 활용되는 방식들 | 김나영
 ‘정치적으로 올바른’ 소송의 시대, 책 읽기의 어려움 | 복도훈
 재현의 정치성에서 상상의 정치성으로: 김시종과 김혜순의 시 | 송승환

특집에 덧붙여 - 현장의 목소리: 분노·자유·문맥

여성 혐오 혹은 분노 사회에서 글쓰기 | 강영숙
 피로 사회의 예술 표현과 자유 | 이현승
 문맥 속에서 유동하는 우리 시대의 문학과 정치성 | 장이지

제3회 문학실험실 포럼 : 문학 비평의 반성: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비평의 숙명으로서의 작품 읽기 | 홍정선
 비평은 없다 | 김영찬
 이명준이 본 것은 무엇이이었을까? | 양윤의
 문학 이론의 위상학: 이론에서 텍스트로 | 강동호

시와 소설

내일의 징후 | 김이설
음악유령부글부글 | 김태용
부검 외 2편 | 손미
순간의 짧은 노출 | 양선형
없는 우리 있는 외 2편 | 한인준
늦은 점심을 먹는 사람들 외 2편 | 함성호
따로 만든 응접실 외 2편 | 황혜경

텍스트 실험 공간

독플레이-이국, 허기, 두 명의 배우를 위한 에튀드 | 창작집단 독

지금 이 언어

박상순, 그의 시는 왜 어려운가: 박상순 시집 『슬픈 감자 200그램』 | 김동원

제3회 김현문학패 발표

김현문학패 소개

선정의 말

수상소감 '문학은 꿈이다'라는 화두 | 서준환
G | 강정

선정작가론

타고난 제작자: 이야기의 소우주를 제작하기 서준환론 | 이소연
奇林, 강정 | 신동욱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모르는 대화, 혹은 모르는 독백 김효나의 『2인용 독백』 | 노대원 442

제5호 필자 소개

(가나다 순)

강동호 | 문학평론가.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현재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학과사회』 편집 동인으로 활동 하고 있다.

강영숙 | 소설가. 1967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흔들리다』 『회색 문헌』 등 5권의 중단편집과 『리나』 등 3권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강정 | 시인.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2년 『현대시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처형극장』 『백치의 산수』 등 6권의 시집과 『나쁜 취향』 등 3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김나영 | 문학평론가. 1983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문학과 사회』를 통해 등단했고,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대산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전공 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달팽이 사냥』을 펴냈다.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동원 | 문학평론가. 1960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번역서로 『바람의 안쪽』(밀로라도 파비치)을 펴냈다.

김수환 | 러시아문학자.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문학연구소에서 로트만의 문화기호학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책에 따라 살기』 『사유하는 구조』 등의 로트만 연구서와 『문화와 폭발』 『기호계』 등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영찬 | 문학평론가. 1965년에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비평극장의 유령들』 『비평의 우울』 등의 평론집을 비롯하여 5권의 저서를 펴냈다. 현재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한국어문화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이설 | 소설가. 1975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오늘처럼 고요히』 등 2권의 중단편집과 『나쁜 피』 등 3권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김태용 | 소설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송실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세계의문학』으로 등단하여, 소설집 『풀밭 위의 돼지』 『포주 이야기』와 장편소설 『숨김없이 남김없이』 『벌거숭이들』 그리고 가상의 시인 자고 드뇌망을 내세운 실험적 텍스트 성격의 시집들로 『뿔바지』 등 3권을 펴냈다.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대원 | 문학평론가. 1983년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현재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복도훈 | 문학평론가. 1973년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눈먼 자의 초상』 『목시록의 네 기사』를 펴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준환 | 소설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극작을 전공했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1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너는 달의 기억』 『고독 역시 착각일 것이다』 등 4권의 중단편집과 『로베스피에르의 죽음』 등 2권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손미 | 시인. 1982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2009년 『문학사상』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양파 공동체』를 펴냈다.

송승환 | 시인·문학평론가. 1971년 광주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문학동네』를 통해 시인으로, 2005년 『현대문학』을 통해 비평가로 등단하여, 시집 『드라이아이스』 『클로로포름』과 평론집 『측위의 감각』을 펴냈다.

신동욱 | 시인. 1977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다. 2001년 『시와반시』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악공, 아나키스트 기타』 『웃고 춤추고 여름하라』 『고래가 되는 꿈 과 산문집 『서정적 게으름』을 펴냈다.

양선형 | 소설가. 1990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14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양윤의 | 문학평론가.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포즈와 프러포즈』를 펴냈다.

이소연 | 문학평론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여, 비평집 『응시하는 겹눈』을 펴냈다.

이현승 | 시인. 1973년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문예중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아이스크림과 늑대』 『친애하는 사물들』 『생활이라는 생각』을 펴냈다. 현재 계간 『파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장이지 | 시인. 1976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여 『안국동울음상점』 『라플란드 우체국』 등 3권의 시집과 『환대의 공간』 등 3권의 평론집을 펴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과리 | 문학평론가.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불어불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문학, 존재의 변증법』부터 『뫼비우스 분면을 떠도는 한국문학을 위한 안내서』에 이르는 12권의 평론집과 『근대소설의 기원에 관한 한 연구』라는 불문학 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창작집단 독 | 2005년에 결성된 희곡 작가 모임. 박춘근·고재규·조정일·김태형·김현우·유희경·천정완·조인숙·임상미가 함께하고 있다. 공동 창작 방식으로 연극 <당신이 잃어버린 것>, <사이렌>, <터미널> 등을 무대에 올렸다.

한인준 | 시인.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13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아름다운 그런데』를 펴냈다.

함성호 | 시인. 1963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 강원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56억 7천만년의 고독』 『키르티무카』 등 4권의 시집을 『허무의 기록』 『건축의 스트레스』 등 2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홍정선 | 문학평론가. 1953년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문학의 시대』의 창간 동인으로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 『역사적 삶과 비평』 『인문학으로서의 문학』 등의 평론집과 『카프와 북한 문학』 등의 연구서, 『신열하일기』 등의 산문집을 펴냈다. 현재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황혜경 | 시인. 1973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2010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느낌 氏가 오고 있다』를 펴냈다. 만 살았다』를 펴냈다.